

■ 금메달 유력 태극전사들



오늘 오전 첫 '금빛' 총성' 울린다

김경욱·김수녕·이은경 등 옛 태극전사들

김찬미·김여울 女 10m 공기소총 출전

유도 최민호 오후 금 향한 한판승 기대

'10·10'을 향한 태극전사들의 금빛 도전이 시작됐다.

9일 오전 사격 김찬미·김여울의 총성은 시작으로 메달 사냥에 돌입한 한국 선수단은 24일 남자 마라톤 이봉주의 생애 마지막 올림픽 역주를 끝으로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 짓게 된다.

25개 종목에 도전장을 낸 267명의 태극전사들의 목표는 '10·10', 10개 이상의 금메달로 전체 순위 10위권에 진입, 스포츠 강국 한국을 다시 한 번 과시한다는 계획이다.

'10·10' 작전은 9일부터 숨가쁘게 진행된다.

오전 9시30분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김찬미와 김여울이 메달 색깔을 결정하기 위한 총성을 울린다. 첫 날 일정이 마무리되는 오후에는 유도 60kg의 최민호가 기선 제압에 나선다.

본격적인 골드러시는 10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의 전략종목인 양궁·수영·레슬링·유도 등의 한판 승부가 집중된 10~15일은 선수단 목표 수성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 올림픽 역사상 수영 첫 금메달을 노리는 박태환은 골드러시 붐의 키를 쥐고 있다.

10일 오전 박태환이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금메달을 터치한 뒤 오후에는 세계 최강의 여자 양궁팀이 단체전 6연패를 위해 활시위를 겪게 된다.

남자 양궁 대표팀의 금빛 조준으로 시작하는 11일에는 '한관승의 사나이' 이원희의 올림픽 2연패를 저지한 유도 왕기준이 유도 73kg에서 금 메달기에 나선다.

12일에는 박태환이 자유형 200m에 출격하고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진종오도 남자 50m 공기권총 금메달에 재도전한다.

레슬링 정지현(그레코로만형 60kg급)은 대회 2연패를 걸고 매트에 오른다. 13일 호흡을 가다듬은 선수단은 14·15일 태극 궁사들의 개인전에서 금메달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14일 체조 남자 개인종합에 출전하는 양태영과 유도 100kg의 장성호도 10위 수성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동참한다.

16일 장미란(75kg이상급)이 들어올리는 바벨 무게에 따라 대표팀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배드민턴의 이용대·정재성조는 중국의 전 종목 석권 저지에 나선다.

대회 후반에는 금빛 발차기가 기다리고 있다.

■ 광주·전남 역대 금메달리스트

대회	선수명	입상종목
제23회 LA 올림픽 (1984년)	김원기	레슬링
	서향순	양궁
	김명순	핸드볼
	김현미	
	이기순	
	한현숙	
	성경화	
	이미영	
	김영남	레슬링
	이계행	태권도
	정국현	
	여기순	사격
	김동문	배드민턴
	인한봉	레슬링
제24회 서울 올림픽 (1988년)	이미영	핸드볼
	장리라	
	차재경	
	문학자	
	김조순	양궁
	김미심	핸드볼
	조민선	유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1992년)	김경훈	태권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 (1996년)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2000년)		

있다. 21일 입수정(여자 57kg급)과 손태진(남자 68kg급)이 이어 22일 황경선(여자 67kg급) 그리고 23일에는 차동민(남자 80kg 이상급)이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걸고 '10·10' 달성을 도전한다.

한국야구대표팀은 23일 메달을 향한 한판 승부를 기다리고,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



트 유승민도 대회 2연패를 향해 만리장성 정복에 나선다. 폐막식이 열리는 24일에는 남자 마라톤의 이봉주가 베이징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 14회 런던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세계 스포츠 무대에 등장한 뒤 총 14번의 하계 올림픽에 출전했다.

/김여울기자 woo@kwangju.co.kr

"후배들이 4년 전 아테네올림픽 준우승 아쉬움을 털고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선수가 아니라 방송사 해설자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후배들을 함께 응원할게요."

여자핸드볼 임오경(37) 서울시청 감독은 8일 베이징 특유의 후텁지근한 날씨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2008 베이징올림픽 핸드볼 경기가 열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둘러봤다.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로 짜인 양궁 해설자들도 눈길을 끈다.

SBS는 1996년 애틀랜타대회 2관왕 김경욱, MBC는 금메달 4개(1988년 2관왕, 1992, 2000년 단체전 우승)를 수확한 김수녕, KBS는 1992년 바르셀로나대회 단체전 우승 주연인 이은경이 마이크를 잡았다.

특히 애틀랜타대회 퍼펙트 골드의 주인공인 김경욱은 둘째를 임신해 만삭의 몸으로 중계석을 지키는 투혼(?)을 발휘한다.

■ 오늘의 올림픽

◇ 9일(토) (이하 한국시간)

▲ 양궁 = 여자 랭킹라운드(13시) 남자 랭킹라운드(16시·이상 올림픽 그린양궁장)

▲ 배드민턴 = 남녀 단식(10시·베이징공과대 체육관) ▲ 여자농구 = 한국·브라질(17시45분·베이징올림픽 농구경기장) ▲ 복싱 = 75kg급(14시30분·베이징노동자체육관)

탁구에서 KBS 해설자로 나서는 안재현 전 대한항공 감독도 베이징대회는 의미가 남다르다.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안재현은 만리장성 허물기에 나설 후배들의 경기를 해설하고 특히 준결승부터는 원조 한·중 팽팽커플인 아내 자오민과 공동 해설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림픽 2연패 시도가 좌절된 아테네 대회 남자 유도 73kg급 우승자 이원희(한국마사회)는 KBS 보조 해설자로 깜짝 등장했다.

또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동문(배드민턴)과 전병관(여도), 김광선(복싱·이상 KBS), 장지원(태권도), 밤수현(배드민턴·이상 MBC), 심현호(레슬링), 황영조(마라톤·이상 SBS)도 뜨거운 장외 입심 대결을 벌인다.

▲ 사이클 = 남자 개인도로(12시·도로사이클 코스) ▲ 펜싱 = 여자 사브르 개인전(11시·국가컨벤션센터 펜싱홀) ▲ 체조 = 남자 부(21시·국가실내체육관) ▲ 여자핸드볼 = 한국·러시아(16시45분·올림픽스포츠센터)

▲ 유도 = 여자 48kg급, 남자 60kg급(12시·베이징과학기술대 체육관) ▲ 사격 = 여자 10m 공기소총(9시30분) 남자 트랩(10시) 남자 10m 공기권총(12시·이상 베이징 사격장)

A+ 에이플러스공인증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현실방법!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 973-9174, 016-757-8800

토지 구함	수완지구	건축 상담
상업용지		

첨단지구상업용지 주유소

1100평 40평(현당 470평)
200평 22평(현당 1100평)

풀프연습장: 120억

광주 지역 녹지 주유소지 890평 930평

풀풀공장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천평 1200평 1800평

부구본촌동 850평

전용 가능 한 금 매물

지역별: 3800평·대형차전입가 650평

생신동: 2800평

전용 가능 한 금 매물

상업용지 140평 122평 80평

부구본촌동 850평

상업용지 1260평

(여수원·복지시설·골프장·축사 등)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 973-9174, 016-757-8800

※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별도

영업이 부진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메뉴개발 경영 노하우 전수!

식당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십시오.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1000억원)

062) 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법원경매 전문회사

- 늘 앞서가는 사람 - (주) 육센코리아

위치: 광주지방법원 경매입찰장 및 상담전화 : (062) 222-8446

경매재테크/투자수익창출/성공적 파트너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설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통지, 선순위 가동기, 거치본, 가집권처인 등 차트화된

상황을 기다립니다. (주) 육센코리아 대표 1 : 1무상상담

▶ 근린시설 대표이사 010-3666-8446

▶ 원룸/모텔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 대/건 갑정가 최저가

화성동/나이트클럽 845/2682 109억 49억

내주술동/건설사무실 63/183 4억5000만 1억3000만

승동동/교회/오션 123/298 12억5000만 5억5000만

우신동/편의점/도매점 192/513 16억8000만 7억2000만

화정동/학원/직원 168/768 14억1000만 7억2000만

나주산정동/의료 975/1188 35억7000만 6억1000만

승천동/동반/의료 236/299 1억1000만 6억600만

승천동/동반/의료 288/120 6억7200만 4억3000만

목포신도시/PC방 58/176 5억200만 3억200만

목포신도시/사무/오피스텔 1178/2009 9700만 4300만

▶ 근린주택 소재지 대/건 갑정가 최저가

유수동/3층 42/43 1억400만 7300만

유수동/2층 46/48 1억300만 6300만

증평동/2층 54/46 1억5500만 1억1800만

오지동/2층 52/57 1억300만 8800만

두원동/2층 49/61 1억2500만 8000만

시화동/단층 334/110 1억4000만 1억3000만

장성군/단층 143/34 1억400만 7300만

문화동/2층 44/53 1억100만 5800만

문화동/단층 104/51 2억400만 1억5000만

화순군/단층 148/33 4600만 3200만

▶ 주택 소재지 대/건 갑정가 최저가

운남동/1층 24/22 6700만 4600만